

좌담

부처님오신날 특집

“어린이 포교 불국토 여는 보험”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 법회 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 한국불교의 새싹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명제가 교계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는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장에서 활동중인 어린이법회 교사들의 포교·교화체험담을 중심으로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화사한 연꽃을 피우기 위해 새싹을 가꾸고 있는 ‘푸른보살’들의 보람과 어려움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린이 포교의 효과적인 실천방향을 설정해 본다. <편집자 주>

어린이법회 교사들 교화 체험담

▲이성주위원장:새싹불자를 키우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불교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믿음직한 보험이라 표현하고 싶군요. 70여년 전 용성스님의 대각교운등으로 어린이 포교가 인식되었으나 맥이 끊기다 시피 했습니다. 그후 1962년부터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어린이 법회가 일반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법회용 교재도 없는 것이 새싹포교의 현실입니다. 씨뿌리고 싹 나오기를 기대하는 조급함과 경제적 지원의 미비로 교사도

자주 바뀌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당위성은 20년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원교사:어린이 포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동참합니다. 그 당시 개혁자의 정신으로 학습지도안과 법회 순서를 만들어 개운사에서 첫 교사 강습회를 열었는데 그때 만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안자체에 변함이 없고 교사들이 자주 바뀌어 스님과 신도, 자모님들



참석자

- 박동원(은석국교 교사) · 이성훈(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실장)
· 이성주(철보사유치원 원장) · 박성희(조계사어린이회 간사)
· 홍소연(부천석왕사 교육주임) · 진행·정리:김원우 기자

1996년 4월27일 녹수청산

두고 고학년은 아이디어게임과 불교적인 요소가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전래놀이인 공기놀이 딱지치기 재기차기 종이공예 등을 활성화하여 완성품을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들도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작의욕을 심어줘야해요.

▲박간사:요즘의 어린이들은 토·일요일에도 특별활동과 학습보충을 위해 학원에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주부 수화반 음악 무용 등과 국어 영어 산수등 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특별활동을 보충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교사: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구기관을 설립해 시청각 자료와 조작자료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원장:이와함께 타종교의 어린이 포교자료를 참조하여 응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요. 자주 방식을 새로해야 합니다.

▲박간사:사찰이 불자어린이의

의 관심이 높을수록 어린이들의 불교친밀도가 높아지고 어린이 법회도 활성화됩니다. 어린이들은 스님과 함께했던 놀이 등의 기억이 아주 강합니다.

▲박교사:어린이 법회가 포교에 중점을 두다보니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려고만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회하도록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소풍이나 단체 여행장으로 전통 관광지 사찰을 찾습니다. 절 입구에 절 유래, 절에서 배출된 고승소재 등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교재를 판매했던 인쇄물로 만들어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원우 기자:어린이 포교교화에는 전문인력양성과 교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단과 스님차원의 관심과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며 먼저 사찰이 어린이 포교공간으로 개방되어야 함을 공감했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원력으로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본사급 사찰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박동원교사 사찰안내책 비치하면 교사들 대부분 자원봉사자

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성훈실장: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열의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사찰에서 부수적 형식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법회운영과 보시차원의 교사들 봉사활동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라도 정책보다는 실천적인 모습이 아쉽습니다.

즉 캠프 등을 구입하여 행사시 무료로 대여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지원이 아쉽습니다.

▲홍소연주임:포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 법회를 하면서 수련대회 장소를 설외 해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꺼려합니다. 수행도량이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본사급 질주반에 작은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또 교사들의 봉사 신심을 요구하기 보다 교사대우제등 대폭적인 예

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어린이 법회 운영이 교사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접근대적인 방식이 고수되고 있는 곳이 많은 형편입니다.

▲박성희간사:2년 남짓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다보니 교사의 연수교육기관과 지도교안을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와함께 교사들 예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교통신비와 뼈대한 시간을 내기가 힘든 현실이 교사들의 유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요.

▲박교사:대체적으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인지되는 현실이지만 그에 수반한 부수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생활하며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린이 포교의 기본은 흥미 즐거움, 보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사교육과 연간.월간계획을 미리 정해서 프로그램을 설정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착한어린이 표를 이용하여 상벌제도를 뚜렷이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도 권유보다는 스스로 생각토록 하고 놀이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홍주임:그렇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석왕사 어린이회에서는 최근 원미산에서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더군요. 또 보시금을 어린이들에게 받아 수련대회 정규프로그램으로 소액새마을을 방문하러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교사:저도 르완다 난민돕기, 연꽃마을 할머니에게 편지쓰기, 책 읽기 판에 표를 붙이게 하여 책임기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공동 저금

통을 마련하여 매달 보시금으로 장애인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전달하는 운동을 펼쳐보니 어린이들 스스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실장:저희 레크리에이션포교회에서는 3년전부터 교계최초로 연꽃캠프를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단위사찰에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기 힘든 것도 대형 모임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면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장:그렇요. 어린이들은 작은 것에서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많은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찰'을 설명하고자 할때는 가까운 절에 어린이들을 데리고가서 대웅전의 부처님을 어떤분이고 종의 유래는 무엇이다는 설명을 시작적인 것과 결말이면 효과적입니다.

▲이실장: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저학년은 레크리에이션에 중점을

화합과 놀이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때부터 불교와 친밀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법회운영은 신도법회와 같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동참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모회의 활성화도 어린이 법회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

▲이원장:올해부터 종교계의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절공간을 이용한 어린이집 개소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교계에서 어린이 포교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합니다.

▲홍주임:그렇습니다. 신도 5백여명에 22명 이상의 사찰유치시설이 확보되면 시·군·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매달 교사 2명의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있어요. 반면 원장의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박간사:사찰에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 스님이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스님들



현장학습 통해 불심 배양 절공간 활용... 어린이집 개설 이성주원장



홍소연주임 시설확대 교사대우 등 경제적 지원 서둘러야



이성훈실장 저학년 흥미유발 프로그램 고학년 아이디어게임 '효과'



박성희간사 스님과 함께하는 놀이 개발 취미·학습지도안 마련도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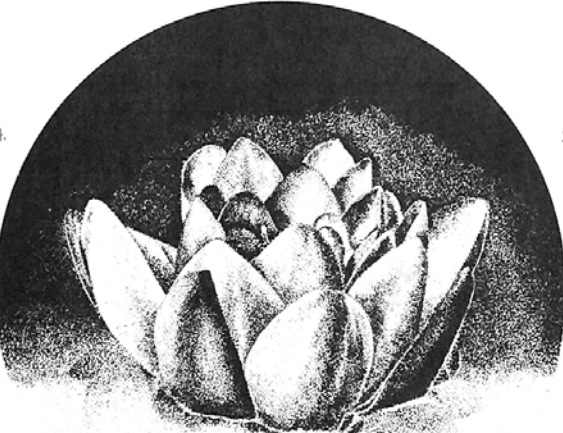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붓다께서 알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내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나 흥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파 디포 브히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발 장고, '나는 조약돌로 본다.' '그대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놓고 있는 어린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먼저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핏속에 그대 재물을 함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라면 7,500원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성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